

A Study on Karma Theory in Nikāya: Focusing on the Usage and Types of Karma Theory

Jaeyong Park*

Meditation Counselling Continuing Education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to examine the types of Buddhist karmic theories appearing in Nikāya and to examine their meanings. There is often an argument that karma is fatalism, so I will examine this through analysis of the theory of karma.

CONTENTS One of karma theory in Nikāya is that one receives current karma due to past actions. In this paper, the definition of karma and examples of karma are analyzed by type, focusing on the Buddha's teachings on karma in the early Buddhist scriptures, Nikāya. The karma theory of Nikāya is organized in detail into 12 examples, which can be organized into 4 types: karma and result, cessation of karma, karma and action, and denial of determinism. The content of denying the deterministic nature of karma and that it is possible to purify karma through action can be seen as a modification made by the Buddha by adding intention(cetanā) to the existing karma theory. In this paper, it is understood that there is an aspect in which Buddha reduced karma to an ethical problem by interpreting the essence of karma as an intention that precedes an action.

RESULTS The Buddhist doctrine of karma aim for nirvana by regulating and purifying behavior in the ethical aspect rather than fatalism.

KEY WORDS Karma Theory, Fatalism, Free Will, Cetanā, Nikāya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20S1A5B5A17089739).

* **Corresponding to** Jaeyong Park (Professor, Meditation Counselling Continuing Education)

E-mail : wilkfire@hanmail.net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니까야에 나타난 업설(業說) 고찰: 업설의 용례와 유형

박재용

명상상담평생교육원 교수

요 약

연구 목적 본 논문은 니까야에 나타난 업설의 용례와 유형에 대한 고찰을 통해 업설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불교의 업설은 과거 행위가 현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종종 운명론이라는 주장이 있으므로 업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를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 내용 니까야에 나타난 대표적인 업설은 과거의 행위로 인해 현재의 업보를 받는다는 것이다. 불교에서 업보는 인과법을 대표하는데, 후대 불교에서는 지옥에 떨어지는 등의 과보를 업의 결과라고 본다. 본고에서는 초기불전인 니까야 중 붓다의 업에 대한 교설을 중심으로 업의 정의와 용례 등을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니까야의 업설은 세부적으로 12가지 용례로 정리되며, 이는 업과 과보, 업의 소멸, 업과 행위, 업의 결정론 부정 등 4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업과 과보에 대한 내용은 다른 인도의 종교 및 학파와 유사한 면도 있지만, 업의 결정론적 성격을 부정하고 행위를 통해 업의 정화가 가능하다는 내용은 기존 업설에 붓다가 의도(cetanā)를 부가하면서 수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붓다가 업의 본질을 행위에 앞선 의도라고 풀이함으로써 업을 형이상학적 문제가 아닌 윤리적 문제로 환원한 측면이 있다고 파악하였다.

결론 불교의 업설은 운명론적 성격보다는 윤리적 측면에서 행위를 규제하고 정화하여 열반을 지향하고자 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업설, 운명론, 자유의지, 의도, 니까야

I. 서 론

불교의 업설은 과거의 행위가 현재의 상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종종 운명론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다. 여기서 운명론이란 과거에 의해 현재와 미래가 결정된다는 점에서宿命론 혹은 결정론으로 부르기도 한다.¹⁾ 일반적으로 동양에서 운명론이란 사람이 출생과 동시에 천기(天氣) 또는 일정한 인과법칙에 의해 수명, 부귀, 화복 등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것이다. 동양철학의 명리학이나 사주가 대표적인 운명론에 속한다. 이와 유사하게 불교의 업설 역시 운명론 혹은宿命론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불교의 업설은 과거의 행위에 의해 현재의 상태가 결정되고, 현재의 행위에 의해 미래가 결정된다는 논리이기 때문이다.

동양의 운명론과 유사한 차원의 논의가 서양에서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는데 대표적으로 결정론(determinism)과 관련된 논쟁이 있다. 서양철학에서 결정론에 대한 논의는 동양만큼 오래된 역사를 갖는다. 결정론에 의하면 모든 것이 과거의 원인에 의해 결정되어 있다는 것으로, 세상 모든 일에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또 그 전의 원인에 의하는 등 끝없이 거슬러 올라가 결코 인과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다. 동양의 운명론과 서양의 결정론의 차이는 동양의 운명론이 인간과 관련이 있는 반면 서양의 결정론은 인간을 포함 물질과 우주 전체에 대한 논의로 확장된다.²⁾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는 아직도 동서양에서 쟁점 중인 난제이다. 결정론자들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없다고 부정하는데, 마칼리 고살라(Makkhali Gosāla) 같은 고대 인도의 운명론자들이 결정론을 대표한다. 최근 신경과학의 발전에 따라 인간의 자유의지 유무를 논하면서 자유의지를 부정하고 결정론을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논의에 의하면 인간이 생각하는 자유의지는 환상에 불과한데, 두뇌의 작용이 의지작용보다 선행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신경과학적 결정론이 급속하게 과학계를 중심으로 퍼지게 되었다. 인간이 자유의지를 갖는지 아니면 두뇌의 생화학적 반응에 종속된 결정론적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활발하게 논의 중에 있다.³⁾

- 1) 운명론,宿命론, 결정론이라는 용어 간에는 적지 않은 개념상의 차이가 있다. 서양철학의 정의에 의거한다면 일일이 각각의 차이를 열거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본고에서는 운명론,宿命론, 결정론을 과거의 행위가 현재와 미래를 결정한다는 의미로 통칭해서 사용하고자 한다.
- 2) 서양의 결정론을 대표하는 것이 “라플라스의 악마”이다. 18세기 프랑스 철학자인 라플라스는 우주의 초기 상태를 아는 존재[악마]가 있다면 미래의 모든 일을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현대 서양철학에 나타나는 자유의지 논쟁은 자유의지론, 결정론, 양립가능론의 형태이며, 세부적으로 소극적/적극적 자유의지론이나 양립가능론/양립불가능론 등으로 나뉜다. 불교에서의 자유의지와 관련된 국내 논문으로는 안성두(2011)가 있다.
- 3) 신경과학의 측면에서는 두뇌와 의식의 문제를 포함한 심신 일원론·이원론의 문제, 생물학적 결정론의 논의 등이 추가된다. 콘후버(1965), 리벳(1983), 프라이드(2011) 등의 실험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선행하는 물리적 뇌의 작용이 뇌파로 검출된 결과를 결정론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 논쟁의 여지가 많

운명론이든 결정론이든 간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부정된다면 현재 우리가 영위하는 삶에 대한 태도에 중대한 변화를 야기할 수 있고 나아가 도덕적·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불교의 업설이 서양철학의 결정론과 유사하다면 불교에 있어서도 자유의지가 부정될 수밖에 없다. 업설은 고대 인도부터 내려온 설로서 붓다 역시 업설에 기반하여 설법을 하였다. 업설에 내포된 운명론적 경향이 사실이라면 수행을 통해 붓다가 되는 것도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딜레마에 빠지므로, 이는 불교에서 풀어야 할 난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업설과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로는 까르마를 윤회설과 연관시켜 업보윤회설로 고찰하고자 하는 논문이 주를 이루고 있다(Park, 1992, 2011; Kim, 2001; Cho, 2002; Heo, 2009). 이 논문들에서는 까르마가 갖는 윤리적 문제와 그 과보로서 윤회의 문제를 다룬다. 또한 까르마로 인한 윤회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윤회의 주체가 언급된다. 이 주제로는 대표적으로 업과 무아(無我)의 문제(Ki, 2011)가 있다.

한편으로 업설의 기원에 대한 연구도 행해졌는데, 인도 고대철학인 우파니샤드(Lee, 2008; Lee K. R., 2011), 요가철학의 업설(Jung, 2001)을 다루고 있다. 특히 초기불전인 아함경과 니까야에 나타난 업설의 특징에 대한 연구(Lee H. B., 2001)와 초기불교에서의 업개념의 형성과 발달(Lim, 2007)도 연구되었다. 또한 업설의 변천을 불교사에서 교학적으로 다루면서 아비달마 및 유식불교의 종자설(Lee, 1982) 등의 변천과 연관짓는 연구도 행해졌다. 또한 업설을 대승불교의 회향사상(Moon, 2005)과 관련시키고, 서원을 통한 업보의 전환(Han, 2007) 등을 다루는 연구도 있었다.

업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공업(共業)을 다루고자 하는 연구도 행해졌는데 대표적으로 공업의 개념(Park, 2009; Namgung, 2010; Yun, 2013; Kim, 2014)으로 다루었으며, 현대사회의 생명관(An, 2004)이나 혹은 공업을 생태학(Namgung, 2006)과 연관시키고 있다. 업설에 대한 응용으로는 업설의 현대적 의미(Kwon, 2008)를 고찰한다든지, 업을 심리치료와 연관시키는 연구(Jang J. Y., 2017; Pack, 2021)도 행해졌다. 나아가 업은 윤리·도덕적 측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연구되었다(Park, 2011; Jang S. H., 2017). 업설을 자유의지나 결정론의 입장에서 비교하고자 한 연구로서, 서양철학의 결정론과 불교철학의 업설과 비교하면서 자유의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Ahn, 2011).

업에 대한 선행연구가 적지 않으나 니까야에 나타난 붓다의 직설(直說)을 전체적으로 분석·분류하여 불교에서 업의 의미를 고찰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고에서는 불교의 업설이 표방하는 내용에 대해 초기경전인 니까야에 나타난 붓다의 교설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본고 후반부에서는 불교의 업설이 자유의지를 긍정 혹은 부정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볼 것이다. 사실 불교의 업설을 서양철학의 자유의지/결정론 논의와 동일한 맥락에서 비교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Ahn, 2011: 133-135).⁴⁾ 업설과 서양철학의 자유의지/결

음에도 일부 신경과학자들은 결정론적 관점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기도 한다.

정론 논의를 1대1로 대응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하며 양자의 내용을 직접 비교하는 대신, 니까야에 나타난 업설의 유형과 설해진 배경과 맥락을 살펴봄으로써 붓다가 업을 설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을 논의의 초점으로 삼고자 한다.

II. 업설의 의미

‘업(業)’은 산스크리트어로 ‘까르마(Karma, 팔리어: Kamma)’이다. 업은 예전에 비해 사용빈도가 낮아지긴 했지만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말 중 하나이다. 이는 현재의 내가 처한, 혹은 감당해야 할 ‘숙명’ 혹은 ‘운명’으로 보거나 과거의 ‘나쁜 행위에 상응하는 결과’를 뜻하기도 하고, 때로는 ‘좋거나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으로서의 행위’나 과거의 선·악 행위에 대한 ‘결과’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듯 업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개념으로, 운명론/숙명론적 느낌과 더불어 윤리적 내용이 그 배경에 함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업은 동사어근 $\sqrt{kr}$ 에서 온 명사이다. $\sqrt{kr}$ 란 ‘하다, 짓다, 행하다, 행위하다, 형성하다, to do, to act’의 의미이고, 명사형인 karma는 ‘행위, 작업, 작용, 구성, 조직, 실행, 성취, 결과, 의식, 행위의 직접목적’ 등으로 사용되는데, 기본 의미로서 ‘인간 삶의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행동’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업에는 또한 일상적인 직업을 나타내는 용례도 있다.

붓다 재세시 바라문교의 까르마[업]의 뜻은 행위적 측면이 강한데, 『우파니샤드』에서 까르마(행위)는 윤리적인 측면보다 올바른 의례로서의 까르마(행위)가 강조되었다. 또 브라만교에서 까르마는 근본적으로 제식(祭式)을 의미하기도 한다(Harvey, Heo trans., 2010: 54; Gombrich, Song trans., 2018: 109). 이와 같은 용례를 통해 행위를 의미하는 까르마(행위)는 물리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나타낸다(Gombrich, Song trans., 2018: 34).

제식과 같이 물리적 행위로서의 까르마(행위)는, 형이상학적 개념인 까르마(업)을 나타내기도 하면서 중의적 의미가 된다. ‘현재의 행위는 그 이전에 행해진 행위의 결과이며 또한 미래 행위의 원인’으로 풀이되고, 또한 ‘과거·현재·미래를 잇는 잠재적이고 초월적인 실재’로 이해된다. 인도의 서사시 『마하바라타』(Mahābhārata)에서는 “그것은 어떤 사람도 피할 수가 없으며 그 림자가 형체를 따르듯이 업은 서 있는 자의 곁에 서 있고 가는 자의 뒤를 따라가며, 행위하는

4) 안성두(Ahn, 2011)는 “결정론과 관련된 불교의 논의맥락이 서양철학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며 서양철학의 용어에 따라 불교의 대응하는 이론을 결정론이나 자유의지론으로 규정하려는 시도는 불교의 현상론적 분석에서 그대로 수용되거나 인정될 수 없다.”고 말한다. 본고 역시 1대1로 대응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인정하며, 업설과 서양철학의 결정론을 직접 비교하는 대신 니까야에 나타난 업설의 유형과 설해진 배경/맥락을 살펴봄으로써 붓다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을 연구의 초점으로 삼고자 한다.

자에게 작용을 미친다.”라고 설명되고 있다. 이 경우 까르마(업)에 대한 고대 인도의 이 두 가지 이해는 숙명론적이고 결정론적 성격이 강하다. 이런 관점에서 까르마는 ① [제식과 같이]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행위 ② 행위의 결과 잠재된 형이상학적인 업 - 이 2가지 용례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불교에서는 후자에 초점을 맞추어 업설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불교는 까르마(행위) 자체보다 그 결과를 일으키는 요인으로서 행위의 윤리적 측면을 특히 강조한다(Harvey, Heo trans., 2010: 54).

곰브리치는 불교에서 업의 의미가 브라만교의 해석과 달라지게 된 것으로 붓다의 업에 대한 재해석으로 들고 있다. 그는 붓다가 ‘행위’를 ‘의도’로 재정의(redefinition)하였고 그 결과 브라만의 이데올로기를 전복하여 세계를 윤리화하였다는 논의를 전개한다(Gombrich, Han trans., 2021: 74). 그 결과 관심의 초점은 세상 사람들과 객관이 관여된 신체적 행위로부터 심리적 작용으로 옮겨간다. 또한 브라만교에서는 제식이라는 실제적 행위를 통해 악한 업을 정화했지만, 불교에서의 ‘정화’는 은유적 표현으로 전환되어 영적 진보를 의미하게 된다(Gombrich, Han trans., 2021: 75). 이를 통해 업 개념은 행위로 부터 의도를 뜻하는 형태로 변화된다(Gombrich, Han trans., 2021: 90).⁵⁾ 이처럼 업이 행위 뿐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의도[동기], 행위에 뒤따르는 일련의 결과 및 윤리성까지 포함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불교만이 업의 윤리성을 말한 것이 아니라 자이나 역시 업을 ‘영혼에 달라붙은 먼지’로 보면서 업을 윤리적인 것으로 보았다.⁶⁾ 여기서 먼지의 비유는 물질적 의미와 윤리적 가치 모두를 내포한다. 자이나교 역시 불교와 마찬가지로 업을 윤리적 개념으로 보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모든 행위는 윤리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업의 일종이며,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즐거움은 바로 그 업의 과보로 이해될 수 있다.

업에 대한 이해는 어느 쪽이나 윤회 관념을 배경으로 한다. 업이 윤회의 원인으로 이해되는 것이다(Harvey, Heo trans., 2010: 54).⁷⁾ 현재의 삶은 업의 결과로서, 숙명적으로 정해진 내용에 기에 온전히 자신의 몫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한편으로는 다음 생의 바람직한 삶의 방식을 위해 선을 쌓거나, 해탈을 위해 모든 불선한 행위의 중지가 요청된다. 이러한 업 이해는 윤리적

5) 곰브리치(2021), p.90, “여기서 붓다의 업설의 두드러진 두 특성을 볼 수 있다. 첫째, 작용이 대상을 대체한다. ... 구원은 자신이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문제이지,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 아니다. 둘째, 그 작용은 윤리화되었다. 완전히 자비롭게 되는 것이 해탈하는 것이다.”

6) 자이나교의 경우에서 업은 ‘행위의 결과로 생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물질’로 이해된다. 이 미세 물질이 순수한 영혼에 부착되어 영혼의 전지성을 파괴하고, 타락시킨다고 본다. 따라서 자이나교에서는 고행(tapas)을 통해 업의 물질을 태워버림으로써 과거의 업에서 해방되며, 새로운 선악의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영혼의 순수성과 전지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한다. 영혼이 순수성을 회복하게 되면, 영혼은 해탈하여 윤회의 사슬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

7) 피터하비(2010), p.54, ‘까르마’는 문자적으로 행위를 의미하고, ‘까르마의 법칙’은 존재들이 자신의 행위의 성질에 따라 환생한다는 것을 말한다.

행위를 고양시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오히려 윤리적 행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내포하기도 한다. 업설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업설은 운명론적이어서 인간의 사고와 노력을 무용하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관성적인 삶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나아가 행위에 대한 무책임과 비도덕성을 허용하는 것으로도 작용한다. 둘째, 업설이 비도덕적으로 여겨지는 것은 곤경에 처한 인간에 대한 무관심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업설로 인해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감각하고, 많은 책임을 개인의 업에 돌릴 수 있다. 업이 인과응보적 윤리성을 띄지만 오히려 윤리적 측면이 배제되는 경향을 보인다. 셋째, 업설은 이기주의적일 수 있는데, 자기 삶의 향상과 해탈 이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갖지 않도록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업설은 운명론적이면서도, 비윤리적 측면이 있다. 현실적으로 업설은 이를 받아들이는 개인에게 숙명론적인 입장과 윤리적 행위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까지 확장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부정적 업설의 수용은 개인이 윤리적 행위를 소극적으로 행하게 하거나, 이타행위가 불가능하게끔 영향을 미친다.

사회에 퍼진 통속적 업설의 부정적 측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업설이 가진 진정한 뜻을 재고찰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니까야에 나타난 붓다가 설한 업설의 유형과 그것이 설해진 배경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III. 니까야에 나타난 업설의 용례와 유형

니까야에 나타난 업설의 내용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⁸⁾

① 업과 중생

용례 1: 중생들은 업이 바로 그들의 주인이고, 업의 상속자이고, 업에서 태어났고 업이 그들의 권속이고 업이 그들의 의지처이다. 업이 중생들을 구분 지어서 천박하고 고귀하게 만든다.

용례 2: 격노하는 자 [또 다른] 격노하는 자를 만나니 업은 이처럼 들고 돈다(kamma-vivattaṇa)

8) 분석한 니까야는 디가 니까야(Dīgha Nikāya, 長部), 맛지마 니까야(Majjhima Nikāya, 中部), 상웃따 니까야(Saṃyutta Nikāya, 相應部), 앙굿따라 니까야(Aṅguttara Nikāya, 增支部)의 4부 니까야이고 쿛다까 니까야(Khuddaka Nikāya, 小部)는 제외하였다. 4부 니까야 전체를 대상으로 업설의 유형을 조사하였다. 각 니까야는 각목스님과 대립스님의 번역본을 참조하였으며, 빨리어 원문 표기는 지면 관계상 생략하기로 한다.

② 업과 과보

용례 1: 만일 그대가 ‘잘 지은 업과 잘못 지은 업의 과(果)와 과보[이숙, vipāka]는 있는가?

용례 2: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과와 과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부정

용례 3: 3가지 업의 결실과 3가지 업의 과보로 지금 이런 크나큰 번영과 크나큰 위세를 가짐

용례 4: 무슨 업을 지어서 이런 지위를 얻었는가?

용례 5: 여래는 과거 · 미래 · 현재에 행하는 업(kamma-samādānānaṃ)의 과보를 조건에 따라 원인에 따라 있는 그대로 안다.

③ 업과 윤회

용례 1: 이런 죄업을 지으면 무간지옥에 떨어진다고 해서 무간업(無間業, ānantariya-kamma)이라 부른다.

용례 2: 선행에 의해서 천상에 가서 선업의 결실과 과보를 누림

④ 업의 소멸

용례: 갈애가 제거되기 때문에 업이 제거된다. 업이 제거되기 때문에 괴로움이 제거된다. 우다이여, 이와 같이 갈애가 멸진되면 업이 멸진되고 업이 멸진되기 때문에 괴로움이 멸진된다.

⑤ 업과 고행

용례: 고행을 통해 업을 청산한다는 갓사빠의 주장을 부정

⑥ 업과 행위

용례 1: 뿌라나 갓사빠에게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출가생활의 결실을 물었는데 그는 업을 짓지 않음을 설명한다.⁹⁾

용례 2: 오래된 업[이라는 조건]에 의해서 생긴 이 몸은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고 의도의 토대가 되는 것이고 느낌의 토대가 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용례 3: 나는 의도가 업이라고 말한다. 의도함으로써 신 · 구 · 의로 업을 짓는다.¹⁰⁾

⑦ 업과 도덕적 행위

용례: 사문 고따마께서는 업을 설하시고 도덕적 행위를 설하시며 바라문 사람들에게 아무런 해악을 도모하지 않는다.

9) 여기서 업을 짓는다면 akiriya로서 a(부정접두어) + kr(to do)에서 파생된 명사로 ‘행위 없음’ 혹은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갖는다.

10) Cetanāḥm bhikkhave kammaṃ vadāmi, cetaṃvā kammaṃ karoti kāyena vācāya manasā

⑧ 신업(身業) · 구업(口業) · 의업(意業)의 3업

용례: 유익한 신업 · 구업 · 의업을 잘 갖추어 계를 청정하고 구축한다.

자애로운 신업으로 대하고 자애로운 구업으로 대하고 자애로운 의업으로 대한다.

⑨ 정견업(正見業)과 사견업(邪見業): 중생들이 지은 업을 알게 됨

용례: 그는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천안(天眼)으로 중생들이 죽고 태어나고, 천박하고 고상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선처에 가고 악처에 가는 것을 보고, 중생들이 지은 바 그 업에 따라가는 것을 꿰뚫어 안다. ... 성자들을 비방하고 샷된 견해를 지니어 사견업(邪見業)을 지었다. ... 정견업(正見業)을 짓는다.

⑩ 10선업과 10불선업

용례: 10선업을 지으면 좋은 곳인 천상세계에 태어나고, 악업을 지으면 지옥이나 축생에 태어남

⑪ 4가지 업

용례: 검은 과보를 가져오는 검은 업, 흰 과보를 가져오는 흰업, 검고 흰 과보를 가져오는 검고 흰 업, 검지도 회지도 앓는 과보를 가져오는 검지도 회지도 앓은 업 → 이것이 업의 소멸로 인도

⑫ 업의 결정론 부정: 모든 행위들이 과거의 업, 신, 우연에 기인하는 것 비판

용례1: 막칼리 고살라의 결정론(niyati)적 견해를 부정 → 모든 것은 이미 운명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노력으로도 이를 바꿀 수 없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행이나 악행을 저질러도 그 때문에 운명이 바뀌지 않는다고 주장

용례2: 아지따 껌사감발리의 사후단멸론(uccheda-vada) 부정 → 푸라나 깃사빠의 경우 ‘행해도 죄악을 범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업을 부정

용례3: 빠꾸다 깃짜야나의 결정론 부정 → 업과 업의 과보를 인정하지 않는 도덕부정론

이상과 같이 니까야에서 업에 대한 서로 다른 12가지 용례를 찾아 유형별로 나누었다. 동일한 용례가 여러 니까야에 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같은 니까야 동일 경에도 조금 다른 형태의 업설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각 유형이 나타난 니까야의 경을 정리하면 <표>와 같다.

<표. 니까야에 나타나는 업의 유형>

업의 유형	해당 경	대표 용례
① 업과 중생	업분석의짧은경(M135) 전생경2(S3:15), 보름밤경(S22:82) 노력경(A4:134), 꼬살라경(A5:49), 나라다경(A5:50), 경우경(A5:57), 원한을제거함경I(A5:161), 장애경(A6:86), 형성된것은어떤것이든경(A6:93)	- 중생들은 업이 바로 그들의 주인이고, 업의 상속자이고, 업에서 태어났고 업이 그들의 권속이고 업이 그들의 의지처이다. - 격노하는 자가 [또 다른] 격노하는 자를 만나나니 업은 이처럼 돌고 돈다.
② 업과 과보	범망경(D1), 사문과경(D2), 마하수닷사나경(D17), 제석문경(D21), 빠야시경(D23), 세기경(D27) 사자후의긴경(M12), 여섯감각장소의분석경(M137), 위대한여섯감각장소경(M149) 달음경(S1:22), 케마경(S2:22) 저승사자경(A3:35), 존재경(A3:76), 의도경(A3:77), 생각할수없음경(A4:77), 보시경(A7:49), 분노경(A7:60)	- 잘 지은 업과 잘못 지은 업의 과(果)와 과보 - 오직 그대가 이 악업을 지었소. 그대가 이 과보를 받을 것이오 - 업의 과보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니 그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면 미치거나 곤혹스럽게 된다.
③ 업과 윤회	사문과경(D2), 대반열반경(D16), 확산경(D28), 삼십이상경(D30) 살라의바라문들경(M41), 교리문답의긴경(M43), 왓차곳따삼명경(M71), 와사곳따긴경(M73), 산다까경(M76), 고빠까목갈라나경(M108), 저승사자경(M130), 업분석의짧은경(M135), 업분석의긴경(M136), 몸에대한마음챙김경(M119) 태어난경3(S1:57), 불방일경(S3:17), 무자식경2(S3:20), 할머니경(S3:22), 빠경(S19:1), 눈[眼]경(S25:1), 형색경(S25:2), 무더기[繖]경(S25:10), 소라고동불기경(S42:8) 깔라마경(A3:65), 제가자에합당함경(A4:60), 보증경(A4:182), 왓빠경(A4:195), 경우경(A5:48)	- 죄업을 지으면 무간지옥에 떨어진다고 해서 무간업. - 내생에 긴 수명을 가져다 줄 업을 지음 - 업과 업을 통해 겪는 것이 이 세상에 확고하게 머뭄 - 욕계 존재 (kāma-bhava) '란 욕계에 태어날 업 - 중생들이 지은 업에 따라 가는 것을 꿰뚫어 앎 - 금생의 이익과 내생의 이익 둘 다를 성취하여 확고하게 하는 하나의 업이 있습니다
④ 업의 소멸	갈애의멸진경(S46:26) 세상경(A4:23), 계보경(A4:28)	- 갈애가 제거되기 때문에 업이 제거된다. 업이 제거되기 때문에 괴로움이 제거된다,
⑤ 업과 고행	갯사빠사자후경(D8)	- 고행을 통해 업을 청산하는 것을 부정
⑥ 업과 행위	사문과경(D2), 갯사빠사자후경(D8) 옷감의비유경(M7), 유학경(M53), 뽀팔라야경(M54), 확실한가르침경(M60), 와셋타경(M98) 그대들같이아님경(S12:37), 의도경I(S12:38) 탐하는자경(A4:66), 범계경2(A4:242), 인연경(A6:39), 빗경 (A6:45), 꿰뚫음경(A6:63)	- 업을 짓는 행위 - 행위에 의해 바라문도 되고 비라문도 됨 - 오래된 업[이라는 조건]에 의해서 생긴 이 몸은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고 의도의 토대가 되는 것이고 느낌의 토대가 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탐욕(성냄, 어리석음) 없음을 업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 비구들이여, 의도가 업이라고 나는 말한다. 의도한 뒤 몸과 말과 마음으로 업을 짓는다.
⑦ 업과 도덕적 행위	소나단다경(D4) 마라견책경(M50) 사누경(S10:5), 없음경(S24:5) 천함경(A5:175), 공동묘지경(A5:249), 여섯태생경(A6:57)	- 업을 설하시고 도덕적 행위를 설함 - 여래를 공격하여 큰 악업을 쌓음 - 드러나건 드러나지 않건 사악한 업 짓지 말라
⑧ 신업(身業) · 구업(口業) · 의업(意業)의 3업	사문과경(D2), 삼명경(D13), 대반열반경(D16), 세기경(D27), 교계 싱글라경(D31), 심상경(D34) 고싱가살라짧은경(M32), 소치는사람의긴경(M33), 꼬살비경(M48), 사마나만다까경(M78), 사마가마경(M104), 오염원경(M128), 어리석은자와현명한자경(M129), 업분석의긴경(M136) 큰견해경(S24:8), 업경(S35:146) 특정경(A3:2), 해로움[不善]경(A3:6), 비난받아마땅함경(A3:7), 악의에참경(A3:8), 유명함경(A3:11), 전륜성왕경(A3:14), 원인경(A3:33), 불순물제거하는 자경(A3:100), 누각경I(A3:105), 누각경2(A3:106), 원인경I(A3:107), 원인경2(A3:108), 원인경3(A3:109), 원인경4(A3:110), 해로운업경(A3:141), 비난받아마땅함경(A3:142), 비뚤어짐경(A3:143), 더러운경(A3:144), 해침I(A3:145), 해침경2(A3:146), 해침 3(A3:147), 해침경4(A3:148), 오진경(A3:150), 빛없음경(A4:62), 비난받아마땅한자경(A4:135), 밧디아경(A4:193), 왓빠경(A4:195), 비난받아마땅함경(A4:237), 악의없음경(A4:238), 업경(A4:260), 대도(大盜)경(A5:103), 편함경(A5:105), 범왕경(A5:133), 기억해야함경2(A6:12), 꿰뚫음경(A6:63)	- 신구의 3업을 통해 계를 청정하고 구족함 - 신구의로 나쁜 행위를 하여 사된 견해를 갖음

<표. 니까야에 나타나는 업의 유형>¹¹⁾

(계속)

업의 유형	해당 경	대표 용례
⑨ 정견업(正見業)과 사견업(邪見業)	사문과경(D2), 수바경(D10), 대전기경(D14), 우뚝바리까사자후경(D25), 확산경(D28) 두려움과공포경(M4), 사자후의진경(M12), 코끼리 발자국비유의 짧은경(M27), 삿까까진경(M36), 앓사뿌라진경(M39), 깐다라까경(M51), 밧달리경(M65), 저승사자경(M130) 수시마경(S12:70), 선(禪)과최상의지혜경(S16:9), 이전경(S51:11), 행한업경(S52:16), 신성한눈경(S52:23) 떠간나경(A3:58), 자넛소니경(A3:59), 불순물제거하는자경(A3:100), 오염원경(A5:23), 다섯가지구성요소경(A5:28), 성취수단경2(A5:68), 공양받아마땅함경2(A6:2), 사자후경(A6:64), 삼매경(A6:70), 율을호지하는자경4(A7:74), 율을호지하는자는빛남경4(A7:78)	정견업(正見業)을 짓거나 사견업(邪見業)을 지음
⑩ 10선업과 10불선업	전륜성왕사자후경(D26), 십상경(D34) 앗살라야나경(M93) 인색경(S1:32), 일곱가지업의길경(S14:26), 열가지업의길경(S14:27) 일곱가지업경(A4:203), 열가지업경(A4:204)	- 10선업을 지으면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남
⑪ 4가지 업	합송경(D33) 견서계경(M57) 간략하게경(A4:231), 상세하게경(A4:232), 소나까야나경(A4:233), 학습계목경(A4:234), 성스러운도경(A4:235), 깨달음의구성요소[覺支]경(A4:236)	- 검은 과보를 가져오는 검은 업, 흰 과보를 가져오는 흰 업, - 검고 흰 과보를 가져오는 검고 흰 업, - 검지도 회지도 않는 과보를 가져오는 검지도 회지도 않은 업(업의 소별로 인도)
⑫ 업의 결정론 부정	사문과경(D2) 괴로움의무더기의짧은경(M14), 우빨리경(M56), 산다까경(M76), 데와다하경(M101), 보름밤의진경(M109), 행하고행하지말아야함경(M114), 위대한마혼가지경(M117) 상가라와경(S7:21), 부미자경(S12:25), 우빠와나경(S12:26), 시와까경(S36:21), 빠딸리야경(S42:13) 외도의주장경(A3:61), 니간타경(A3:74), 소금덩이경(A3:99), 결합경(A3:115), 머리칼로만든웃감경(A3:135)	결정론, 사후단멸론, 도덕부정론 등의 부정

<표>에 나타난 12가지 용례를 다시 분석하면 크게 4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 A. ① 업과 중생, ② 업과 과보, ③ 업과 윤회
- B. ④ 업의 소멸, ⑤ 업과 고행
- C. ⑥ 행위로서의 업, ⑦ 업과 도덕적 행위, ⑧ 신·구·의 3업, ⑨ 정견업과 사견업, ⑩ 10선업과 10불선업, 4가지 업
- D. ⑫ 업의 결정론 부정

11) 정전의 이름은 각목스님과 대립스님이 편찬한 디가니까야, 맛지마니까야, 상웃다니까야, 앙굿따라니까야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며, 대응되는 빨리어 경명은 지면 관계상 생략하였다.

니까야의 업 내용을 분석한 후 4종으로 분류하였다. A의 경우 업의 작자, 작자가 받는 과보, 이로 인한 윤회를 묶어 같은 유형으로 하였다. B는 업이 어떻게 소멸되는지와, 고행을 통해서 업을 소멸시킬 수 없다는 내용을 같은 유형으로 묶었다. C는 업이 행위를 통해 지어진다는 내용과 선업·불선업의 구분을 같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D는 업이 가진 결정론을 부정하는 내용으로 도덕부정론 등을 별도의 유형으로 묶었다.

A와 B유형의 경우 일반적으로 알려진 업의 작자, 과보, 윤회의 문제 및 업의 소멸에 대한 것으로 특히 A-③업과 윤회는 업의 형이상학적 측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¹²⁾ 한편 C와 D 유형의 경우 행위의 문제, 결정론·자유의지의 문제 및 업의 윤리성과 연결시킬 수 있다. 본고에서는 업의 행위적 측면, 자유의지 논의를 다루고자 하므로 업설 분류 중 C와 D유형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기로 한다.

IV. 니까야의 업설과 자유의지 논의

앞 장의 논의를 토대로 니까야에 나타난 업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니까야의 업설은 크게 형이상학적 부분과 현실적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니까야에 나타나는 업의 형이상학적 측면은 과거 행위와 그 과보인[A-②] 윤회의 양상[A-③]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내세에 초래하는 업의 과보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다분히 종교적 관점을 함의한다. 한편으로 업과 행위[C]는 현재에 초점을 맞추는 윤리적 측면이 강하다. 이 경우, 도덕적 행위[C-⑦]가 중요한데 니까야에서는 업의 정화를 목적으로 업을 세밀히 나누는 경향이 있다. 신·구·의 3업, 10선업·10불선업, 4가지 업[C-⑧,⑨,⑩] 등으로 설해지는 이유는 현재와 앞으로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기 때문이다. 행위로서의 업은 현대 윤리학의 전개와 유사하며 범죄 처벌 논리와도 유사한 구조를 갖는다.

둘째, 니까야에 나타난 업설의 가장 큰 특징은 붓다가 업을 의도(cetanā)라고 본 점이다[C-⑥]. 『앙굿따라 니까야』『꿰똥음경(A6:63)』에서는 다음과 같이 업과 의도의 관계를 설하고 있다.

‘비구들이여, 업을 알아야 한다. 업의 소멸로 인도하는 수행을 알아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연하여 말한 것인가? 비구들이여, 의도가 업이라고 나는 말하노니 의도한 뒤 몸과 말과 마음으로 업을 짓는다. 『꿰똥음경(A6:63)』

경에서는 의도가 업이라고 결론짓고 있는데 그 형태는 다음과 같다.

12) A, B유형의 모든 내용을 업의 형이상학적 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본고의 논의 전개상 행위와 의도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임의적으로 나눈 측면이 있다.

의도 = 의업 → 신업 · 구업

따라서 불교에서는 의도가 모든 업의 근원이 된다는 것으로, 서양철학의 행위 중심 관점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 또한 의도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 『상윳따 니까야』에 다음과 같이 설해지고 있다.

비구들이여, 어떤 것을 의도하고 어떤 것을 계속해서 사유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잠재성향을 가지면 그것은 식이 머무는 조건이 된다. 『의도경1(S12:38)』

여기서 의도라는 것이 어떤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면 이것이 잠재적 경향이 되어 우리의 행위를 규정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잘못된 혹은 나쁜 의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인가. 니까야에서는 의도를 없앴으로써 업을 소멸할 수 있다고 한다.

내가 의도하는 것은 나쁘다. 내가 의도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 만일 내가 의도하고 계속해서 [업]을 형성해 나가면 이런 나의 인식은 소멸하고 다른 거친 인식이 생겨날 것이다. 그러니 참으로 나는 의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업]을 형성하지 않으리라.’라고 그는 의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업]을 형성하지 않는다. 그가 의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업]을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인식은 소멸하고 다른 거친 인식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는 소멸을 체험한다.” 『갓사빠 사자후경(D8)』

앞서 붓다가 ‘업[행위]’을 ‘의도’로 재정의하면서 결과적으로 브라만의 이데올로기를 넘어 세계를 윤리화하였다는 고프리치의 주장을 소개한 바 있다. 의도가 업이라는 관점을 통해 업설에 대한 통속적 관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불교의 업설을 결정론 혹은 운명론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과거의 행위가 현재의 상태를 규정하거나, 혹은 현재의 행위가 미래의 상태를 기계적으로 규정한다면 업설은 결정론[운명론]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니까야의 곳곳에서 붓다는 막칼리 고살라의 운명론이나 아지따 께사감발리의 단멸론을 적극적으로 부정하고 있다[D-12]. 막칼리나 아지따가 비록 다른 형태의 업설을 표방하지만 결과적으로 운명론적 견해를 주장하기 때문이다. 『앙굿따라 니까야』 『의도주장의 경(A3:61)』에서 붓다는 현재의 상태가 전생의 행위에서 기인한 다거나, 절대적인 신에 의하거나, 원인이나 조건없이 만들어진다는 세 가지 이교도 관점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운명론, 유신론, 무인론을 부정하고 있다. 붓다는 업이 결정론적 운명(niyati)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Harvey, Heo trans., 2010: 67-68). 통속적 업 개념은 행위 및 결과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자신들의 현재 행위가 자신의 운명론의 결과라고 만들어내는 측면이 있다.

넷째, 니까야에 나타난 업설에서는 표면적으로 자유의지를 표방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의도를

강조하고[C-⑥] 업설이 가진 결정론을 부정하기 때문에[D-⑫] 자유의지를 옹호한다고 볼 수 있다. 다른 말로 업설이 운명론이 아닌 근거는 인간이 선택의 자유인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가 하는 행위는 이전의 행위의 업이 현재 나타난 결과가 아니다. 과거 행위의 결과가 현재 나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붓다는 인간에게 일어난 모든 것이 업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상윳따 니까야』 『시와까경』(S36:21)에서 설하였다[D-⑫]. 이 경에서 붓다는 지금 경험하는 모든 것이 과거의 업에 의해 기인한다는 것을 비판한다. 붓다는 좋거나 나쁜 경험을 업의 탓으로 돌리는 것을 의학적 혹은 상식적 설명이 불가능할 때만 적합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Harvey, Heo trans., 2010: 69; Gombrich, Song trans., 2018: 56). 업에 관한 붓다의 가르침은 윤리적 권유가 주를 이룬다. 붓다의 교설은 미래를 향하여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받아들여지도록 고안된 것이다(Gombrich, Song trans., 2018: 57). 붓다는 업설이 내포하고 있는 운명론적인 해석을 뒤집어 현재의 의도 및 바른 행위를 통해 우리가 자유롭게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음을 제시한다.¹³⁾

V. 결 론

불교의 업설은 업보사상이라고도 불리며 종종 운명론으로 오해되고 있다. 고대 인도에서 운명론적 관점은 사성계급과 같은 신분제도의 옹호를 위한 도구이기도 했다. 불교에서 업보는 인과법을 대표하고 있으며, 후대 불교에서는 지옥에 떨어지는 등의 과보를 업의 결과라고 보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초기불전인 니까야에 등장하는 붓다의 업에 대한 교설을 중심으로 업의 정의와 용례 등을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니까야에 나타나는 업설은 세부적으로 12가지 주제로 정리되며, 이는 업과 과보, 업의 소멸, 업과 도덕적 행위, 업의 결정론적 성격 부정 등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불교에서 업은 크게 종교적·형이상학적 부분과 행위적·실천적 부분으로 나뉜다. 불교의 업과 그 과보에 대한 내용은 다른 인도 종교·학과와 유사한 면도 있지만, 업의 결정론적 성격은 부정되고 있다. 붓다는 행위의 동기에 해당하는 의도(cetanā)를 기존의 업설에 부가하면서 근원에서 수정하였다. 그 결과 업을 바라문의 제식이나 형이상학적 차원이 아닌 윤리적 문제로 환원하였다. 그 결과 불교의 업설은 인도고대의 전통적 업설과는 다른 차원으로 진행되었다. 니까야 곳곳에는 운명론 혹은 결정론을 부정하고 현재의 선택 행위에 초점을

13) 안성두(2011)는 붓다가 업을 의도라고 본다 해도, 업이 서양철학에서 말하는 결정론이 아님을 완벽히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한다. 안성두의 논의처럼 서양철학의 용어에 해당하는 불교의 대응이론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서양철학에서 논의되는 자유의지와 결정론 논쟁을 그대로 불교 업설에 투영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동양적 의미의 통속적 운명론은 붓다의 ‘업이 곧 의도’라는 설에 의해 부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맞춤으로써 수행을 통한 열반의 길이 가능성을 역설한 붓다의 진의를 확인할 수 있다.

References

[Primary Sources]

AN: *Āṅguttara Nikāya*. PTS.

DN: *Dīgha Nikāya*. PTS.

MN: *Majjhima Nikāya*. PTS.

SN: *Saṃyutta Nikāya*. PTS.

[Secondary Sources]

Ahn, S. D. (2011). Perception and Karma in Buddhism: with Reference to the Problems around the Determinism. *Korean Journal of Indian Philosophy*, 32, 133-165.

An, O. S. (2004). A Characteristic of the Buddhist View of Life in Karma and Rebirth Theory: Equality of Humans and Animals. *Philosophical Studies*, 89, 243-265.

Āṅguttara Nikāya. 대림 옮김 (2007). 앙굿따라 니까야 1-6. 울산: 초기불전연구원.

Cho, Y. K. (2003). Meaning of the Law of Karma in Modern Society.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Buddhist Studies*, 33, 1-65.

Dīgha Nikāya. 각목 옮김 (2006). 디가 니까야 1-3. 울산: 초기불전연구원.

Gombrich, Richard F. *How Buddhism began: the conditioned genesis of the early teachings*. 한대성 옮김 (2021). 불교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초기 불교 가르침의 연기적 생성. 서울: 씨아이알.

Gombrich, Richard F. *What the Buddha thought*, 송남주 옮김 (2018). 고티브리치의 불교 강의: 붓다 사유의 기원과 위대한 독창성. 서울: 불광출판사.

Han, T. S. (2007). A Wish in Buddhism. *Journal of The Pure Land Buddhism Studies*, 10, 9-51.

Harvey, Peter. *An Introduction to Buddhist ethics: Foundations, values and issues*, 허남결 옮김 (2010). 불교윤리학 입문: 토대, 가치와 쟁점. 서울: 씨아이알.

Heo, N. K. (2009). Everyday Life's Practical Receptive Attitude towards the Thought of Karman and Saṃsāra, *Indian Philosophy* 26. *Korea Society for Indian Philosophy*, 26, 125-149.

- Jang, J. Y. (2017). The principle of Mind Healing: Focused on Buddhist Doctrine of Karma and Retribution. *Philosophical Studies*, 116, 193-219.
- Jang, S. H. (2017). The Ethical Character of Kanna in the Early Buddhism and its Meaning in Moral Education. *Journal of Ethics Education Studies*, 46, 1-36.
- Jung, S. S. (2001). The Correspondence of Karma Theories between Yoga Philosophy and Buddhism. *BUL GYO HAK BO*, 38, 115-143.
- Ki, K. S. (2011). Consciousness as a Medium of Selflessness and Karma - Identification of the concept of consciousness in the possession and transmission of karma in reincarnation. *Philosophical forum*, 39, 117-128.
- Kim, H. J. (2001). The Ethical Relevance of Karma and Reincarnation. *Philosophical Investigation*, 13, 128-144.
- Kim, H. S. (2014). Group Karma (sādhāraṇa-karma) in Theravāda Perspective: According to the Nikāyas and Abhidhmma. *Journal of Bojo Jinul's Thought*, 42, 252-289.
- Kwon, D. K. (2008). The Modern Interpretation of the Buddhist Theroy of Karma. *Korean Journal of Correctional Discourse*, 22, 23-41.
- Lee, H. B. (2001). *Some features of karma-theory in Buddhism*. Unpublished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Lee, K. R. (2011). The Doctrine of Karma and Saṃsāra in Upaniṣads and Early Buddhism. *The Korean Association of Buddhist Studies*, 29, 7-43.
- Lee, M. (1982). A Study on the Origin of Bija theory: Focusing on the Thought of Karma.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Buddhist Studies*, 7, 169-182.
- Lee, Y. J. (2008). Theory of Reincarnation in Indian Philosophy - From Upaniṣads to Buddhism. *Journal of Wonkwang Somatic Science*, 9, 88-95.
- Lim, S. T. (2007). On the Development of Karma Conception: From the Ritualism to Early Buddhism. *Philosophia*, 103, 151-179.
- Majjhima Nnikāya*. 대림 옮김 (2012). 맞지마 니까야 1-4. 울산: 초기불전연구원.
- Moon, E. S. (2005). A comparative study between the Karmaphalavāda and the Pariṇāmavāda. *The Journal of Hoedang Studies*, 10, 110-139.
- Namgung, S. (2006). An Eco-philosophical Interpretation of Collective Karma in terms of Social Aspect.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Buddhist Studies*, 46, 297-322.
- Namgung, S. (2010). The Origin and Social Practicability of the Shared - karma. *Studies of Seon culture*, 9, 303-336.
- Paek, D. S. (2021). A Study of Buddhist basis of the Psychotherapy by Buddhist Karma(action)

- Meditation. *Journal of Eastern-asia Buddhism and Culture*, 45, 303-329.
- Park, B. K. (2011). A Moral Educational Approach to the Buddhist Thought of Precepts - focusing on the Problem of Free Will from the Perspective of the Korean Buddhist Theory of Precepts. *Journal of Ethics and Philosophy Education*, 16, 99-113.
- Park, K. J. (1992). The Problem of Motivism and Consequentism in Buddhist Kamma - vada. *BUL GYO HAK BO*, 29, 521-540.
- Park, K. J. (2009). The Social Connotations on the Buddhist Theory of Collective Karma - Focusing on the Philosophical Discussion about Social Practice. *BUL GYO HAK BO*, 52, 149-171.
- Park, K. J. (2011). The Significance and Interpretation of Buddhist Karma - Transmigration Theory. *The Korean Association of Buddhist Studies*, 29, 163-193.
- Samyutta Nikāya*. 각목 옮김 (2009). 상윳따 니까야 1-6. 울산: 초기불전연구원.
- Yun, J. G. (2013). Understanding of the Buddhism for the collective pain. *Journal of Eastern-asia Buddhism and Culture*, 14, 183-211.